



권승찬 작 '식(食)2.66'

당신은 하루에 몇끼를 먹습니까?

광주인의

작가·시민 함께 29일까지 아시아문화마루 '팔로우'전
“고무신 얼굴” 관람하고 ‘작가의 방’으로 놀러오세요”

모두가 함께 웃는 세상을 꿈꾸는 한 시민은 '정청맨'을 만들었다. 모든 이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함께 웃고 울어주는 영웅이 있으면 세상의 근심걱정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스펙 뺑뺑맨'도 있다. 취업난에 대한 고민과 세태를 반영한 영웅이다.

이 영웅들은 설치미술가인 백상옥(33)씨가 시민들과 함께 만든 작품들이다. 시민들은 백씨의 도움을 받아 자신들이 생각하는 영웅의 모습을 '고무신 얼굴'로 표현했다. 모두가 공감하는 영웅도 있고, 자신의 개성이 잘 드러난 작품도 있다.

광주시 동구 아시아문화마루에서 지난 1일 개막해 오는 29일까지 열리는 '팔로우' 전에는 예술가와 시민이 함께 만든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다. 지난 4~5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이 진행한 창작프로그램 '팔로우'에 참여한 작가들이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만들어낸 결과물들이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시민·작가팀은 두 달 동안 리서치나 참여 프로그램, 아이디어 제안 등을 통해서 시민들과 함께 작품을 만들었다.

전남대문화재단대학원에 재학중인 이현옥(여·35)씨는 동료 학생들과 프로그램에 참여, 작가로 데뷔했다. 이씨 팀은 'retro-광주'라는 이름으로 광주의 오래된 것들의 흔적을 따라다니며 카메라에 담았다. 그 사진 속에 다른 이질적인 것을 덧붙여 새롭고, 세련된 것만을 추구하는 현 세태를 꼬집었다.

설치미디어아티스트인 권승찬(41)씨가 선보인 '식(食)2.66'은 광

주 시민 3659명을 상대로 한 온·오프라인 설문조사 결과물을 주제로 한 작품이다. 시민들에게 '당신은 하루에 몇 끼를 먹습니까?'라는 질문을 던져, 그 평균값 2.66 끼니를 산출했다. 2.66을 깜빡이는 네온사인 작품으로 만들어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의 불규칙한 끼니를 표현했다.

대학생들이 만든 아카이브 형식의 미디어아트 작품도 있다. 조선대 신문방송학과 분과인 CBN은 팔로우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작가와 시민들의 활동 모습을 25분 분량 영상에 담았다.

설치미술가인 김경란씨는 과거 봉지로 만든 꽃 장식으로 전시장을 꾸몄고, 육감각은 아날로그적 감성이 돌진 풍기는 캘리그래피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부채와 손 글씨, 종이접기를 이용한 작품을 선보인다.

한국화가 설박씨는 자신의 작품 소재인 화선지를 이용해 매주 금요일 시민들과 연서를 만들었고, 전시장 3층에 '작가의 방'을 만들어 관람객들이 작가들의 작업실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CBN 김민재(24·조선대 신문방송학과 3학년)씨는 "비록 대학생이지만 작가라는 이름으로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작가들의 작업과정을 담고,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은 앞으로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문의 062-236-0481.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백상옥 작 '고무신 얼굴'

제29회 무등미술대전 761점 입상

한국화 이남수·서양화 서호인 대상 수상

'제29회 무등미술대전'에서 '공즉시색-나비의 꿈'을 출품한 이남수(63·전북 익산)씨가 한국화 부문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서양화 부문에서는 서호인(25·여수)씨가 '관계'로 대상을 차지했다. <첨단 광주일보 홈페이지 참조>

(사)광주전남발전협의회는 10일 광주비엔날레전시관에서 제29회 무등미술대전 심사위원회를 열고 서양화, 한국화, 서예, 조각, 사진, 공예 등 6개 부문 6개 작품을 대상으로, 9개 부문 25개 작품을 우수상작으로 각각 선정했다. 수채화, 관화, 문인화 부문

대상작은 없다.

이번 무등미술대전에는 모두 9개 부문에 1197점이 출품됐으며 모두 761점(특선 229점·입선 501점 등)이 입상작으로 선정됐다.

부문별 대상 수상자와 작품은 ▲조각 전백진(25·강원 인제) '나는 누구인가' ▲공예 정종구(45·광주 동구) '휴식' ▲서예 우영언(82·광주 동구) '반가장' ▲사진 홍순익(52·경북 청송) '공간HI' 등이다.

각 부문별 대상에게는 상금 300만원이 시상된다. 시상식은 오는 24일 오후 2시 광주비엔날레전시관에서 열리고, 입상작은 24일부터 7월1일까지 같은 장소에서 전시된다. 문의 062-233-1922.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서호인 작 '관계'



이남수 작 '공즉시색-나비의 꿈'

광주 문화예술상 김현승·정소파 문학상 신설

문학분야 올해부터 3개 부문

광주시 문화예술상 문학 부문에 기존 박용철 문학상과 더불어 김현승, 정소파 문학상이 추가된다.

정소파(101) 선생은 현역 최고령 시인으로, 생전에 시인을 기리는 문학상이 제정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광주시는 "김현승, 정소파 시인이 한국 문화예술발전기에 뚜렷한 족적을 남긴 광주지역의 대표적인 문인이기 때문에 이를 기리기 위해 이름을 딴 상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수상 종류 확대도 문화예술상 문학부문은 올해부터 3명의 수상자를 내게된다.

올해 탄생 100주년인 다형(茶形) 김현승(1913~1975) 선생은 1934년 시 '쓸쓸한 겨울저녁이 올때 당신들'이 양주동 시인의 추천을 받아 문단에 발을 들였다. 조선대학교 교수를

지내면서 광주지역을 대표하는 문인인 문병란·손광은·이성부씨 등을 배출했다. 김 선생의 대표작으로는 '가을의 기도', '눈물', '플라타너스' 등이 있다.

1912년 태어나 1세기를 넘겨 살고 있는 정소파(광주 남구) 선생은 살아있는 문단의 역사로 통한다. 시인 백석(1912~95)과 동갑내기였다. 생전에 시문학 동인인 김영랑(1903~50)·박용철(1904~38) 선생과도 가깝게 지냈다.

그는 18세 때 일본 유학을 떠나 와세다대에서 문학을 전공한 후 광주로 돌아와 '설창' '호남공론' 등 각종 잡지를 만들면서 '광주문단'에 주춧돌을 놓았다. 1957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시조부문에 '설매사'가 당선된 이후 시조의 현대화에 평생을 바쳤다. 선생은 현재도 매일 시를 쓸 정도로 왕성한 필력을 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이복순 명창의 소리강연

'실버다움 문화강좌' 12일 광주시립미술관

광주시립미술관은 오는 12일 오후 3시 미술관 본관 세미나실에서 '실버다움 문화강좌' 제4강을 개최한다.

중요 무형 문화재 제5호 판소리 심청가 이수자이자 광주시립극

단 삼일차서 단원인 이복순 명창이 '함께 이해하고 듣는 판소리'를 주제로 강연한다. 전남대 예술대학 국악과를 졸업한 이복순 명창은 지난해 제24회 복포 전국 국악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실버다움 문화강좌'는 고령 인구의 문화 복지 일환으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매달 한차례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 다음 강좌는 다음달 17일 문형철 첨단한방병원장이 '노인질환 건강관리'를 주제로 진행한다. 문의 062-613-7151.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창업 31주년 **국제보청기**

www.kjhr.com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본 점 062)227-9940	충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코잔드침대
온열, 안마

이승엽침대
코잔드 201 진동안마침대
프레임 A6247

코잔드침대 온열,안마침대 이승엽침대

소파 60종류

이태리엔틱 식탁, TV장

지하~2층 소파, 식탁 전문매장 3층 온열, 안마, 단롭침대 4,5층 50%할인매장

NAVER **홍스페이스** www.hong79.com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로터리 58-15 홍스페이스 가구빌딩

홍스페이스 1899-0240